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월 22일(주일) 제1133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가기 위해 성도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7 목회사관학교 '영혼을 살리는 리더'

2월 6~9일 목회사관학교
2월 3일 'Acts29 비전 컨퍼런스'

2017 목회사관학교가 2월 6일부터 9일까지 '영혼을 살리는 리더'를 주제로 열린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40명이 참석한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Upside-down 리더십', '목회 리더십 멘토링',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리더의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하용조 목사 리더십 토크, 미니콘서트 with 이재훈 목사, 예수바보콘서트(조별콘서트), 팀 빌딩(리더의 시간관리)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2월 3일에는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를 위한 '2017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해외비전교회 전임교역자, 비전교회 협력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친교활동, 지역별 모임, CGNTV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새벽예배의 은혜는 계속 이어진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종료 ...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내일부터 온누리교회 1부 새벽예배 5시20분, 2부 6시30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대장정을 마쳤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30개 해외비전교회, 기도처, 선교지 등지에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예언서 말씀을 바탕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교했다. 나라와 민족, 차세대, 대학청년, 가족, 교회, 선교, 이주민, 통일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했다. 거룩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부르짖음의 장이었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CGNTV가 제작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한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풍성했다.

김정선 권사(신용산공동체)는 "정말 시의적절하게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했고, 올해 처음 예배안내 위원으로 섬긴 박인호 성도(김포공동체)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 자녀와 함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이성원 순장(강동 온누리교회)은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면서 "새해에는 죄를 돌이켜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지수 학생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꼭 해야 하는 일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했고, 김명원

집사(성동광진공동체)는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끝났지만 새벽기도회는 계속된다. 1월 23일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1부 새벽예배 시간이 5시 20분으로 변경된다. 장소는 서빙고 본당, 양재 사랑홀, 캠퍼스 본당이다. 서빙고와 양재 2부 새벽기도회 시간은 6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장소는 서빙고 본당, 양재 기쁨홀, 캠퍼스 본당이다. 강도는 6시 20분에 새벽예배를 드린다. 앞으로 대학청년부 홀리스타를 포함한 온누리교회 모든 새벽예배는 찬양(7분), 기도 및 성경봉독(3분), 말씀선포(15분), 합심기도 및 축도(5분) 순으로 진행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예수제자학교(JDS)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등록금은 50만 원이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주간반(서빙고, 양재)과 저녁반(서빙고, 양재, 수원)으로 나뉘어 3월부터 9월까지 22주 동안 진행된다.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 4학점을 인정해 준다.

예수제자학교(JDS)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악한 영과의 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2-3215-3625, 02-3215-353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2면 특집 큐티는 생활입니다 6면 절기 설 추도예배 11면 *다음주(1월 29일) 신문은 설 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재미!

인천 몽골어 예배 어르시허 형제



예수 믿는 재미에 폭 빠진 어르시허(우), 새홍출(좌) 부부.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180도 변했다. 몽골에서 온 어르시허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 없었다. 돈 벌려고 온 한국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려 교회에 온 것이 처음이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예쁜 각시랑 가정도 꾸렸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지난 14일 안산M센터에서 열린 몽골인 맞춤형 선교집회에서 그를 만났다. 어르시허 형제가 180여 명의 몽골인들 앞에 서 있었다. 답답한 목소리로 간증을 시작했다. 동포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고, 눈가가 축축하게 젖었다.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몽골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어르시허 형제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 믿고 난 이후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어르시허 형제는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에 출석하며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인천 몽골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김지에 목사는 어르시허 형제를 몽골어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보물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전도한 에르몽 형제는 “언제나 힘이 되는 든든한 형”이라고 했다. 이 귀한 칭찬들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거칠었다. 지금의 착하고 든든한 만형 같은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 한국에 와서는 더 했다. 팍팍한 타국살이에 지쳤는지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화를 냈다. 다혈질 청년으로 통했다.

그는 2010년 큰돈을 벌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에 왔다. 큰돈을 벌 자신도 있었다.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과류 중개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을 정도로 사업 수완이 좋았기 때문이다. 한국생활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 몽골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익혔다. 이주민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나쁜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공장에서 일했는데 정말 더러운 꼴을 많이 당했어요. 육은 기본이고, 오물을 뒤집어쓰기도 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건 너무한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삶이 점점 허무해졌어요.”

그는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삶이 무의미해졌다. 돈을 벌어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던지 제가 살아있는 송장 같더라고요. 그때 몽골인 친구

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조언해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인천 온누리교회 몽골어 예배였다. 그는 경기도 김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인천까지 오는 길이 즐거웠다. 교회에만 가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를 전도했던 친구가 몽골로 돌아갔다. 다시 혼자가 되면 어쩌나 걱정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주민을 위한 설날 수련회에 참석했다. 바로 그곳이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벌어진 장소 말이다.

“회개할 사람은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나갔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한국 성도님의 기도가 귀를 타고 제 심장에 꽂혔어요. 제가 쏟아내고 싶은 회개 기도를 그 분이 대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펄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가 터졌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

“제 마음의 상처와 허전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셨어요. 그 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꿈도 없이 살던 저에게 찬양이라는 꿈이 생겼어요. 몽골 찬양 팀을 꾸리고 새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찬양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분

명해요.”

기도응답의 축복이 쏟아지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쏟아졌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다는 기도가 응답되었다. 김포에서 일하던 그가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의 식품업체로 이직을 한 것.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마침 이직한 회사에는 기숙사가 있다. 인천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게 비자가 만료되는 4년 10개월 동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몽골로 돌아가서 1년을 보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선물이 있었다.

“몽골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섬기는 재미로 살고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다른 조건 없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매면 된다고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배우자,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쁜 배우자를 만났다. 몽골에서 의대를 졸업한 당찬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10대 시절부터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녀의 이름은 새홍출이다. 그녀와 결혼하자마자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렸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고 저를 몽골에 1년 동안 묶어두신 거였더라고요. 그녀와 결혼하고 나서 전에 일하던 한국 기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내도 인하대학교에서 유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그는 인천의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인하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고 있다. 집도 인천 온누리교회 근처에 구했다. 요즘 그들 부부가 폭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찬양이다. 평일에도 교회를 방문해서 찬양연습을 한다. 부부가 함께 찬양하는 행복이 신혼의 달콤함 보다 아주 조금 더 달콤할 때가 있다고 한다. 전도에도 관심이 많다. 자신이 만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동포들에게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알려주고 싶어요. 또 직장에서는 행동도 조심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매일 같이 몽골인들을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이주민들이 돌이키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주민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설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모세가 호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강해설교입니다. 신명기의 신(申)은 ‘거듭’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신당부, 거듭 당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당부하는 계명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Deuteronomy’, 헬라어로 ‘듀트로노미’입니다. ‘Deutero’는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두 번째 법입니다. 영어번역보다 한자 신명기(申命記)라는 이름이 성격에 훨씬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 번째 주어진 법이라는 의미보다 거듭 당부하는 말씀으로 해설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것과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제목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의 ‘드발임’, ‘엘라헤드발임’이 신명기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호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을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설명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이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 아라바 광야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직전입니다. 출애굽한지 40년이 지나서 광야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직전에 모세가 40년 전 받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강 동쪽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1절).

“요단 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5절).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렘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대상이 애굽에서 자라난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을 제외한 모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입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입니다. 다음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육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당시는 유목시대, 유랑시대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민으로 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씨를 뿌려 농사짓고 수고하여 얻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설하고 적용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한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다음세대들이 그 땅을 올바르게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호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적절한 결정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설명과 설교를 얼마나 마음 깊이 들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모세는 리더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억의 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땅은 물질이지만 말씀은 영이요, 정신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의 영혼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물질이 영혼보다 앞서면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영혼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땅이 주어지느냐 보다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렘 산에서부터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의 40여 년 동안을 압축해서 회고하는 내용

입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역사를 3장으로 회고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회고했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가 율법을 다시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을 잘 읽어야 4장부터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필요한 기억들만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해석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과 약간 상이한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장 후반부를 보면 모세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할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기억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뽑아서 하라”고 충고했고,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제가 어떻게 이 짐을 집니까?”라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습니다. 결론은 모세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존경받는 리더십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민수기와 신명기가 다르니까 이것은 짜깁기 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억의 틀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국가 지도자들이 은퇴하고 회고록을 쓸 때도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기억으로 기록합니다. 때로는 해석의 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현장에 있었던 사건일지라도 해석의 틀에 따라서 다른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기억의 틀이 무엇이었는데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사 의식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기억의 틀이 무엇인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가 과거에 교통법규를 몇 번이나 위반했는지를 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역사관이 있는지, 어떤 역사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기억의 틀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억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직후 가나안 땅

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실패의 역사가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기억하는 일

“호렘 산에서 세일 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데는 11일이 걸립니다. 40년째 되는 해 열한째 달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선포했습니다”(2~3절).

호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11일이 걸립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간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걸려 갈 길이 막혀서 하루 종일 걸리면 통탄합니다.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사 해석의 틀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왜 지나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왜 광야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다는 실재가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지 광야에서 왜 40년을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익숙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잘 살면 됐지 역사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은 다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땀땀과 방황하는 일이 얼마나 뼈아팠겠습니까. 모세와 다음세대가 서로 다른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조상들과 다음세대들의 기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억의 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일 실패의 역사를 잘못 기억했다면 이렇게 긴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세대들에게 또 다른 실패를 남겨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실패입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방황했다는 것은 역사의 실패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실패요, 엄청난 패배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를 잘못된 기준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신년기획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는 13개 유관기관이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13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올해 사역계획과 포부, 기도제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누리의 영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만난 유관기관장은 복지재단 정호옥 목사, 선교재단 장규환 장로, 온누리미션 노규석 목사, NGO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이다.

/ 정현주, 김현준, 이소정 기자

13개 유관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정호옥 목사
(복지재단 상임이사)

온누리복지재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관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전문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1999년 8월 설립되었다. 고 하용조 목사가 초대 대표이사로 지금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대표이사로 섬기고 있다. 복지재단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사회복지 실현과 더불어 영혼 구원과 복음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헌신적으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꽃 중의 꽃이다. 다음은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옥 목사와의 일문일답.

온누리복지재단을 소개해주시요.

“온누리복지재단은 1999년부터 금호사역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번동코이노니아,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동부노인요양전문센터, 온누리요양센터, 청파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동코이노니아’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시설입니다. 성인 지적장애인 화가들과 봉재전문 기술이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미술작품과 생필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친구입니다.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설계해주고,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복지, 교육, 자립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온누리요양센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버팀목입니다. 어르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성심껏 돕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올해 온누리복지재단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목표로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번동코이노니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입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청파노인복지센터’는 후기 노인(75세 이상)들에게 편중되었던 프로그램을 초기 노인(75세 이하)들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노년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는 위기청소년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것입니다. 또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온누리요양센터’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입소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전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온누리복지재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주시고, 마음과 물질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누리복지재단을 위해서 단 하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복한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온누리선교재단’

온누리선교재단은 온누리교회의 하드웨어와 같다. 교회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설 건축, 유지 및 보안관리, 식당, 커피숍, 사이닝글로리, 결혼예배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편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발 벗고 나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다. 다음은 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장규환 장로와의 일문일답.

온누리선교재단을 소개해 주십시오.

“간혹 온누리선교재단을 선교부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이라는 명칭은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에 따라 지어진 것이 맞기는 합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온누리교회와 성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의 영성과 편리, 안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사이닝글로리, 식당, 결혼예배 등 교회의 모든 시설 건축과 유지, 보안 관리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양지 숙소동의 건축과 유지관리도 온누리선교재단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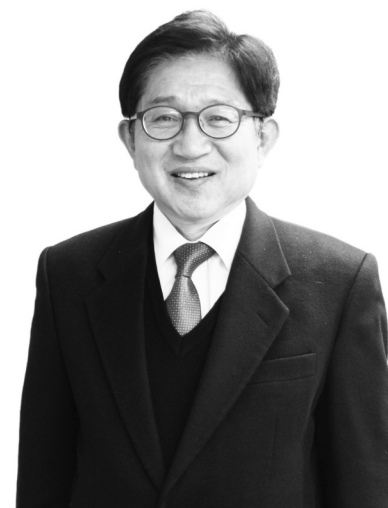
“온누리선교재단은 2015년부터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를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착한 청지기’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종이면서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 된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

천하기 위하여 전문성 강화, 친절한 마음 갖기, 주인의식 갖기 등의 훈련과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올해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누리선교재단의 노력입니다.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개념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영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커피 한 잔을 제공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려면 영적 성숙이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전 직원들은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적성숙과 더불어 업무의 전문성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장규환 장로
(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Onnuri
Welfare FoundationOnnuri
온누리선교재단더 멋진 세상
better world온누리
M미션
MISSION

힘차게, 더 헌신적으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NGO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
(NGO더멋진세상)

NGO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온누리교회가 설립한 국제개발 NGO다. 종교, 이념, 인종의 장벽을 뛰어 넘어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사랑, 섬김, 희망을 핵심 가치로 내걸고 더멋진마을 조성사업(Making Better Village), 어린이 생명 살리기(Children Rescue Program), 긴급구호 및 난민지원 사업,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촌 이웃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NGO더멋진세상이다. 다음은 NGO더멋진세상 김창욱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NGO더멋진세상의 사역이 궁금합니다.

“NGO더멋진세상의 주요사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전도종족이나 가난한 나라에 직접 찾아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곳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보건, 교육, 위생, 환경 등 총체적 개발을 통해 해당 국가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입니다. 말라리아나 HIV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어린이들과 열악한 환경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산모와 태아를 살리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구호 활동입니다. 지진, 홍수, 태풍 등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구촌 이웃들을 신속하게 찾아가 구호하고, 전쟁으로 생겨난 난민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NGO더멋진세상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고레다라 마을을 더 멋진 마을로 변화시켰습니다. 가옥 69채(82세대), 고레다라온누리교회, 초등학교, 마을 진입로 공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는 초등학교를 신축하고, 조산소도 증축했습니다. 기니비사우에서도 초등학교를 신축했고, 레바논과 우간다에서는 난민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올해는 총 17개국에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NGO의 이름으로 들어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2가지 사업도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서부 아프리카에 BLC(Better Life Center)를 건립해서 농업, 환경, 위생, 적정기술, CHE(Community Health Education,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개발전략) 등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차세대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합숙훈련(3개월) 및 교육을 실시한 이후 다시 파송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업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실시하고 있는 ECD(Early Childhood Development) 교육센터입니다. ECD는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위생, 질서, 공부, 인사, 관계, 협력 등 전인격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부터 2개 교실을 운영해서 1기가 졸업했습니다.

ECD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부모들과 정부 관계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들을 찾아가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람퐁족, 스리랑카 베다족, 몽골 브리야트족을 찾아가서 더 멋진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예수님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도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NGO더멋진세상의 모든 사역은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도 NGO더멋진세상을 통하여 열방이 돌이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모아주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NGO더멋진세상이 되겠습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큰 희망을 주는 NGO더멋진세상이 되겠습니다.”

외국어예배 100개 만드는 꿈 '온누리M미션'

바야흐로 이주민 천국시대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온누리교회는 199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다. 찾아오는 선교지 외국인 이주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다. 1995년에는 ‘온누리M미션’이라는 이름의 정식 사역팀을 발족했다. 20년 훌쩍 넘게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노후가 쌓이고 또 쌓였다. 외국인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복음화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온누리M미션 노규석 목사와의 일문일답.

온누리M미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온누리M미션의 비전은 100개의 외국어예배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현재 23개의 외국어예배와 4개의 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안산에 M센터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지난해는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소프트웨어 구축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을 섬기고, 전

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키우고, 이주민을 위한 양육, 전도, 선교 프로그램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올해 중점 사역이 무엇입니까

“M선교사(한국 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사역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경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디아스포라, 유학생 등 2억 명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국에 있더라도 이주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M선교사 제도가 뿌리내리고, 저변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6대 거점을 만드는 일도 실시할 것입니다. 안산을 중심으로 김포, 화성, 송도, 남양주, 평택, 대전에 M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이 지역들

은 외국인 이주민들의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미군기지, 대학교, 공단 등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온 누리의 다양한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이주민 300만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6대 거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민 선교는 통일을 준비하고, 아시아를 끌어가는 선교라고 확신합니다. 이주민 선교가 통일을 대비하는 예비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 선교의 다음 단계는 통일입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통합은 정부 혼자서는 못합니다. 결국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주민 선교는 아시아를 품는 선교입니다. 이주민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꿈이 있고, 자기 나라로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본부장)

돌아가서 리더십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공생을 꿈꾼다면 그들을 제대로 품어야 합니다. 안산M센터가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들을 일으키고,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주민 사역은 봉사자들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창간 30주년

큐티는 생활이다. 매일 먹는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삶〉 창간부터 꿈꾼 것이 바로 큐티의 생활화다. 여기 〈생명의 삶〉 창간 30주년을 맞아 큐티 생활화 운동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다. 서빙고 큐티사역팀 손신국 목사(이하 손), 박흥균 장로(이하 박), 〈생명의 삶〉 편집장 장덕은 목사(이하 장)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만나 큐티가 무엇이고, 큐티를 왜 해야 하는지, 큐티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물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큐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 복 받는 통로, 하늘의 위로!

큐티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겁니까?

박: “큐티(Quite Time)는 매일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7년에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가장 처음 들은 말이 바로 큐티였습니다. 그만큼 큐티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더불어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온누리큐티〉라는 책에서 “큐티는 영적 성장의 본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손: “두란노서원에서 1987년 〈생명의 삶〉을 창간하면서부터 온누리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큐티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확신하시고 ‘백만큐티운동’, ‘천만큐티운동’ 등을 벌이셨습니다. 큐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큐티하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하면 큐티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덕분입니다.”

큐티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려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사실 매일 큐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영혼의 일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비밀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장: “큐티를 4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매일, 일대일, 하나님의 음성,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그 음성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1996년 두란노서원에 입사하면서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두란노서원 직원들은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큐티 하면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서도 성장하지만 저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비결은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인관계나 태도, 성품, 기질 등이 많이 바뀐 것도 큐티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빛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손: “큐티를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설교 중심의 신

패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려는 최소한의 노력”

손신국 목사
(서빙고 큐티사역팀)



“큐티는 무기, 승리를 위하여 장착하고 있어야”

박흥균 장로
(서빙고 큐티사역팀)



“매일, 일대일, 하나님의 음성, 묵상”

장덕은 목사
(〈생명의 삶〉 편집장)



앙생활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지나치게 바쁜 일상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원수인 시끄러운 소음과 분주함, 군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큐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변화를 거부하는 안이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만족감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이한 태도가 큐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큐티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욕구가 크지 않으면 큐티에 대한 욕구도 줄어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조직은 큐티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큐티가 없다면 ‘순’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치관이 혼합되고 혼동된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큐티라는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큐티를 잘하는 비결 또한 그것입니다. 큐티는 무기입니다. 늘 장착하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어떻게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까?

장: “〈생명의 삶〉을 단순한 큐티책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큐티가 재미있고, 소중하고, 습관이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갈급한 사랑의 마음을 〈생명의 삶〉에 부어주십시오. 초신자나 큐티가 어려운 성도들은 ‘묵상에세이’, ‘본문해설’, ‘한 절 묵상’과 같은 읽을거리를 읽으면서 묵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큐티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은 구절 옆에 있는 여백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십시오. 큐티가 어렵다고 본문보다 다른 읽을거리에만 의존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일기를 써가듯이 큐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 “〈생명의 삶〉은 굉장히 친절한 책입니다.

말씀 요약도 해주고, 해당되는 기도제목도 써주고, 예문도 어쩔 그리 적절하게 찾아내는지 감탄스럽습니다. 초신자들이 큐티책을 가까이 여기려면 책이 친숙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의 삶〉은 초신자들이 큐티하는데 매우 좋은 가이드입니다. 손에서 〈생명의 삶〉을 놓지 마십시오. 간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큐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장: “박 장로님께서서는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큐티 나눔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좋은 방법이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혼자 큐티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큐티모임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서로가 큐티 할 수 있도록 응원도 독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순모임에서 만나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SNS를 이용해 큐티한 내용을 나누십시오. 어느 순간 큐티가 몸에 배어있을 것입니다.”

박: “그렇습니다. 큐티를 매일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신앙성숙을 위해서도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큐티하기에 〈생명의 삶〉보다 활용하기 좋은 책이 없습니다. 책을 펴는 것만으로도 큐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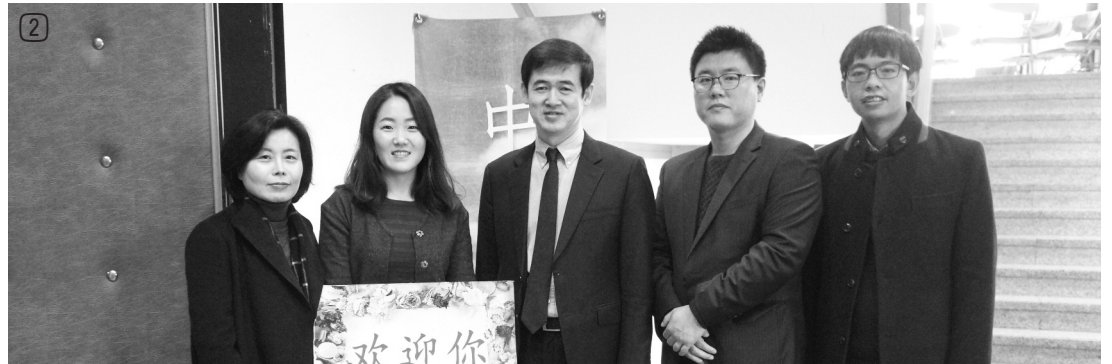
큐티 생활화를 꿈꾸는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지난 30년 동안 〈생명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의 〈생명의 삶〉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큐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이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큐티를 통해 채워간다고 생각하면 큐티가 쉬워질 것입니다.”

손: “큐티를 숙제하듯이 혹은 남의 것을 따라하듯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호흡처럼 느껴야 합니다.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 그 자체입니다. 잘하지 못한다고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관심이 생기고, 하다보면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면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고 싶고, 진짜 나의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하면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큐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이요, 복 받는 통로요, 하늘의 위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작은 영웅들

CGNTV 송출실 직원, 동시통역팀 황지연 집사, 유석인 자매



① CGNTV 송출실(이주영 팀장, 박재원 형제). ② 황지연 집사(사진 왼쪽)와 중국어예배 통역팀. ③ 유석인 자매(왼쪽 두번째)와 일본어예배 통역팀.

일본CGNTV 시청자 카지와라 씨(카바현 거주)는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본다. ‘돌아키면 살아나라’를 주제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날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일본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남모르는 헌신이 숨어 있다. 예배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는 CGNTV 덕분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문 CGNTV에서도 예배실황이 생중계 되고 있다. 그것도 현지어로 말이다. 일본어와 중국어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365일 24시간 쉼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CGNTV 송출실 직원들과 동시통역팀 황지연 집사(중국어), 유석인(일본어) 자매가 이 아름다운 일들이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작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다.

24시간 쉼 없이 달린다 ‘CGNTV 송출실’

“앞이 안 보이는 시청자께서 CGNTV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는 군부대에서, 또 누군가는 병상에서 CGNTV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도 자주 듣고요. 시청자 한 분 한 분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CGNTV 송출실 이주영 팀장이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유다. CGNTV는 24시간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송되고 있는 순수복음방송이다. CGNTV가 365일 24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송출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5층에 CGNTV 송출실이 있다. 자그마한 공간에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보석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송출실은 방송의 시작인 동시에 끝인 곳이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도 송출실을 통해 4개 채널(한국 케이블, 한국 위성, 일본, 중문)로 생중계되고 있다. CGNTV 송출실 직원들은 은혜의 현장을 아무런 사고 없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임하고 있다. 40일 동안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작은 실수가 큰 방송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은 더욱 그렇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사소한 방송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CGNTV 송출실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다.

“CGNTV는 일반 영상이 아니라 복음이 담긴 생명이거든요. CGNTV 잘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입니다.”

CGNTV 송출실은 모두 7명의 직원들이 2인 1조 2교대 근무하고 있다. 24시간 쉼 없이 방송하기 위하여 늘 그곳을 지켜야 하는 고단하고 외로운 자리다. 7명의 송출실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유 있게 식사를 한 적이 손에 꼽힌다. 그만큼 외롭고, 부담되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명감과 굳은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단 한 명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일본어와 중국어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늦잠도 자지 않고, 예배시

간에 졸지도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작은 영웅들이 있다. 중국어 동시통역 봉사자 황지연 집사와 일본어 동시통역 봉사자 유석인 자매가 그 주인공이다.

황지연 집사는 2009년부터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 자신의 통역 당번일 때는 물론이고, 당번이 아닐 때도 새벽기도회에 빠진 적이 없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성실하게 섬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 통역봉사자 중에서도 베테랑 중의 베테랑으로 통한다. 그런 그녀에게도 새벽기도회 동시통역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생방송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 맞춰 교회에 오는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른 새벽 시간이라 대중교통편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한번은 폭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었다.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회 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폭설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갔어요. 다음날 새벽기도회 가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없어서 혼쫓이 났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40일 새벽기도회의 원활한 통역봉사를 위해서 이사까지 했다. 그녀의 40일 새벽기도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방송이라는 압박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통역봉사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 그녀의 통역을 듣고 단 한 명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생방송에 대한 압박이 크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중국의 어느 산간지방에

사는 한 영혼에게 전해지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절대로 허투루 할 수 없고, 더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일본어예배부는 온누리교회 외국어예배 부서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역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어예배 초창기부터 통역팀을 유지해 왔으니 20년도 넘었다. 주일 3부 예배는 물론 일본어예배(주일 오후 2시 20분 서빙고 한동홀), 각종 교회행사에서도 통역봉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일본어 통역 봉사자들의 성실한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어예배부 유석인 자매도 오랫동안 통역봉사를 해오고 있다. 무려 10년이나 됐다. 통역 전문가인 그녀에게 다른 통역과 비교해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통역이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시간이요. 아침 일찍 통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강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아니 새벽부터 통역을 해야 하는 것도 곤욕인데 생방송이니 오죽할까. 그래도 일본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그녀를 붙잡고 있다. 사명감과 성실함이 없다면 해낼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다. 유석인 자매는 더 많은 통역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역 봉사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온누리교회 통역 봉사자 모임이 있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봉사자들만 모이고 있어요. 제3세계 언어가 가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언어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라



1월 13일 Fri 금요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스가랴 3:1~10
이재훈 목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천사 앞에서 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다”(슥 3:1).

여기서 여호와와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본질이 고소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근거는 불법적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정결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지위입니다. 그의 직책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이스

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근거 없는 고소에 하나님이 뜻밖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죄와 허물이 나타날지라도 버

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단에게 백성들에 대한 심판권을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심판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나무토막이 타다가 꺼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검정 그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엄청 맛있는 조각상이 아니라 불에서 꺼내진 나무토막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채와 그을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

아에게 나타난 고소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고소의 원인이 되는 오물로 가득 찬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해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1월 14일 Sat 토요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가복음 11:9~13
바사르 선교사

저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2007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해서 2009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입니다.

신학교 졸업을 1년 남기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은 너무 행복했고 완벽했습니다. 주일 아랍어에

배에서 누가복음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하혈을 해서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아기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2주가 흘렀습니다. 2주 동안 저희 부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의사가 찾아와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임신 25주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아이

의 몸무게는 겨우 900g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병원과 의사를 보면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심장수술을 받아야 했고 뇌출혈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다그쳤습니다. 의사는 손사래를 치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훌륭한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70일 동안 심각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 부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려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부부가 힘들 때마다 그분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아줄 때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의사는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2년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들은 지금 7살입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의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1월 16일 Mon 월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스가랴 4:1~14
이재훈 목사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처한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경험하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룹바벨 앞에 보여 진 것은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평소에 보던 등잔대와 달랐습니다. 등잔대 위에 대접 7개가 있고, 7대접에 촛불이 있고, 대접에 대롱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접으로 기름이 공급될 수 있게 등잔대 좌우에 있는 올리브나무에 연결된 관이었습니다. 등

잔대는 올리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등잔대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고, 구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너희들은 이 등잔대와 같아야 한다. 올리브

나무와 연결돼 기름이 공급되고 계속 불타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시급한 것은 나와 연결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너희에게 연결해라.”

문제는 이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망가진 것입니다. 죄가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망가뜨려서 순전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게 가로 막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슥 4:6).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의 기름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임

재하심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삶의 불빛이 꺼집니다. 그 불빛이 꺼질 때 작은 장애물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돌이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1월 17일 *Tue* 화요일

참된 경건

스가랴 7:1~14
이재훈 목사

스가랴 7장에서 베엘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생활 동안 늘 하던 대로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하나요?”

주전 586년 5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월의 환난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질문을 한 시점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였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째 시작돼서 6년째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중간 정도 재건되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진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습관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행위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었습니다. 진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습관으로 굳어져 행동하는 것은 죄의 무서운 모습임

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 이전에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둘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금식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십니다. 진정한 금식의 능력은 금식 이후에 나타납니다. 금식이 끝난 후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외식적인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금식을 지켜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본질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 깊이 숨겨져 있는 외식적, 형식적, 이중적인 죄를 회개하고 돌아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13~14절). 너희를 회오리바람을 불어 알지 못하는 나라로 흩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바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켜야 하나. 이중적, 외식적, 형식적인 죄로부터 돌아켜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됐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1월 18일 *Wed* 수요일

슬피 울리라

스가랴 12:10~14
이재훈 목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실 때 슬피 울며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의 죄와 너의 후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니까 동정하지 말고 죄를 애통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 지도자입니까. 유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피 울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슬피 우는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슬피 우는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슬피 우는 슬픔의 깊이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과 같습니다. 어떤 슬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을 알면 세상을 쉽게 살지 않습니다. 헛된 즐거움에 희희낙락 할 수 없습니다.

슬피 우는 슬픔은 선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입니다. 요시아 왕이 전사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슬퍼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은 확신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땅의 각 지방이 같이

슬퍼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통곡의 눈물이 흐르는 역사입니다.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입니다.

돌아킬 때 슬픔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 눈물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식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만큼 심각한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여주십니다. 내가 슬피 울 때 이웃에게 눈물이 전파되고, 온 땅의 각 집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열방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눈물의 역사가 회복되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에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월 19일 *Thu* 목요일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1~9
이재훈 목사

스가랴 13장에서 죄는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움은 외형적인 더러움을 넘어서 근본적인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샘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더러움은 덮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씻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 아닐까요. 정말 갈급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물이 터져 나오는 절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끝 날에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

은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씻어야 될 엄청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8절에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

”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조차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제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9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도 거짓과 우상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온전히 씻어내심으로써 우리를 천국의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매일 샘물과 같은 보혈 앞으로 나아가 씻음 받고 정결해지기를 바랍니다.



1월 20일 Fri 금요일

하나님의 계명

요한일서 3:23
이한영 교수

하나님은 될 일도 기도를 통해서 이뤄지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기도를 통해 이뤄지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겸손하게 하고, 실패를 소망으로 성화시켜줍니다. 궁극적인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뤄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 가시적이고 협소적인 나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돈, 권력,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킬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생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에 함축된 참된 정체성과 속성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전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이 금과 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보자 앞으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 이뤄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어도 이뤄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기 하루 전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오늘의 기도는 40일전과 비교해서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40일전과 비교해서 나의 우선순위와 방향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거나 연약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

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있습니다. 저는 항상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 예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완벽한 신앙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딸이 애 통하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아픔과 고난을 사랑으로 성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새벽에 나와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부적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진정한 기도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이고 원동력입니다.

1월 21일 Sat 토요일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 3:7~12
이재훈 목사

말라기는 예언서의 마지막이자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세기 이후 시대를 살았습니다. 포로에서 1차, 2차, 3차 귀환한 백성들이 차례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두 재건된 것 같습니다. 성전, 성벽, 율법, 제사 등 문제없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후 말라기 선지자는 내면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진 내면

에 숨어있는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위선과 탐욕과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외형적으로 신앙을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여섯 번 나옵니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대화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대화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세 번째와 네 번째 대화는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섯 차례 하나님의 지적에 대꾸하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입니다. 모든 나라와 영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썩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는 십의 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쓰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하나님께 악하게 도전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다 태워버리고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4:1~2).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권면하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의 두루마리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절은 “돌아키지 않으면 저주가 이 땅을 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돌아키라는 것입니다. 돌아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도록, 생명과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돌이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가족, 민족과 역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감사 ·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서대문 공동체)

설 · 감 · 사 · 예 · 배

* 가정예배 지침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을 위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가정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상을 상 위에 세워 놓고 그 앞에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

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미리 찬송가를 틀어 놓음으로써 찬송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4.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을 전하며 가족들의 특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친지나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설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550, 통248).....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이사야 61:1~3	가족 중에서
설교	여호와와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설교자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경배와 찬양 346)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초로 자신의 생애의 전망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속의 ‘나’는 실제로 이사

야 선지자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주

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가난한 사람’이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기보다 먼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과 영혼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해에는 완고한 자기주장과 교만, 우월한 비교의식과 특권의식, 냉정한 마음과 차가운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같이 또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자라기보다는 먼저 ‘회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앞서 말한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라는 말은 ‘죄악에서 돌아키는 자를 살리시며’라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돌아키면 살아나리라”는 교회

가 선포한 목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가 예언한 포로된 자에 대한 자유와 갇힌 자에 대한 놓임의 선포는 그동안 종과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해방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해, 곧 회년의 선포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자유의 선포자이셨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오직 삶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가정으로 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가는 말

주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삶과 같은 전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요, 불의한 생각과 삶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오직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새롭게 도래한 2017년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건네주고, 모든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개식사		다같이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39:7-10.....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새438, 통49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요한복음 10:39~42	가족 중에서
설교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설교자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경배와 찬양 387)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예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들어가는 말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겨울을 어디에서 보내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절정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됨으로,

주님이 마지막 겨울을 체류하신 장소는 매우 의미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40절). 요단강 건너편은 죽음으로 예표되는 광야와 생명으로 상징되는 약속의 땅을 나누는 상징적 경계선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던 특별한 의미와 상징, 그리고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신 것은 분명히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던 세례 요한을 추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곳을 특별하게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40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던 자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추억하시는 것과 같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살아있는 신앙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추억하시며 그리워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과 삶이 현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

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에 머무신 것만으로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이 사람(예수)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고 깨닫기 시작했으며(41절), 나아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42절). 요한은 죽은 자였으나 그가 한 말과 행실은 아직도 살아있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우리가 사랑하던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인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인의 신앙과 삶과 사역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신앙이 더욱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을 담대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몽골에서 온 이주민, 예수를 만나다

안산M센터, 맞춤형도집회 'New Start' 개최



지난 14일 열린 맞춤형도집회에서 스태프들이 이주민들을 축복하고 있다.

안산M센터가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안산M센터에서 개최된 몽골인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New Start'가 바로 그것. 이날 전도집회에는 몽골에서 온 이주민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산M센터에서는 맞춤형도집회와 더불어 의료, 이미용, 네일아트, 사진인화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인천과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출롱

바트 형제는 "친구들의 초청으로 난생 처음 교회에 왔는데 정말 반갑게 맞아 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맞춤형도집회 New Start는 특순, 메시지,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위십댄스, 태권무, 부채춤, 무용, 북춤 등 다양한 특순을 선보였다. 특히 차세대들이 선보인 태권무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 공동체 지체들은 '그림자극'으로 나

그네 삶의 고단함과 십자가의 기쁨을 표현했다.

설교는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가 했다. 서牧사는 몽골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올해를 가장 완벽하게 보내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며 "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전도집회에 참석한 남카자매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서 "앞으로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2기 2차 모집

1월 24일 화요일까지 35세 이하 청년

대학청년부 단기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movement) 12기 2차 헌신자를 1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영육이 강건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다. 나이는 35세 이하(83년생)로 제한한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목회자 추천서, 공동체 리더십 추천서, 지인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2월 1일 경기도 용인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실시된다.

FA 12기 헌신자로 선발되면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받는다. 선교현장에는 3월 24일부터 8월 4일

까지 머물게 된다. 파송국가는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다.

FA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팀을 이뤄 전방개척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이다. FA 헌신자가 아니어도 재정 및 기도 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FA 중보기도회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달은 구정연휴 관계로 1월 23일에 중보기도모임을 진행한다.

문의: 070-4464-8105

favision2000@gmail.com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

05(예금주 FA간사)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차세대 신년모임 개최

전임교역자 4인 부임, 이길수 장로 대표 장로



지난 15일 온누리교회 차세대 신년모임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차세대가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차세대 신년모임을 개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차세대 교역자와 장로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모임에서는 새로 차세대 전임교역자로 부임한 김혜영, 김은영, 김진아, 임경현 전도사가 인사했다. 이길수 장로가 차세대 대표 장로로, 박덕현, 유형, 차준규, 최주

관, 함일성 장로는 차세대 신임장로로 세워졌다.

차세대 대표 장로로 섬기던 강기석 장로는 이임사에서 "차세대를 위해 늘 신경써주시는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고, 신임 대표 장로 이길수 장로는 "훌륭한 선배 장로님들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차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2월 5일(주일) 시간: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 / 대상: 2016년 11월 5일 ~ 2017년 1월 14일 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김사영 김지연	문홍식 방예영 황미리	이연주 동대문중앙 공정환 이수종 이윤화 정구영 서경원 최유진 최정연	서대문 김윤희 문연희 이명숙	성북 윤경호 전영울 정문숙	도현석 이정은	이촌 최지은	홍지희 S보릿지 강연희 강현희 구경민 김정운 서지희 신경미 양준영 이 석 정선재 최민선 최용미
강촌 김윤정 박지수	광명 고은주 김옥휘 서경원 최유진 최정연	마포 김서현 김영준 노명숙 신혜선 이영숙 황수연	서빙고 최재영 홍현순	신용산 김은주 박성운 박희경 장진주 정경섭	영등포구 손운근 이하나	중종로 명지혜 오세진 장해인 정명철	
고양은평 김현정 박기복 신지호 전순자 홍선화	김포 이태인	성동광진 강해숙 박상원 오문평 이지원 전영주	양천 김한호 김해정 남선영	용산 김상원 김정식 이덕규 장예스터 한승연	한강 서안나 조정숙 신승애		
관악금천	노원 김기철 이복임						

세례자

■서빙고	이정하 841030	김동훈 황재선	민예지 150209
김수현 780123	입교	남연희 150323	민경환 신지호
배현선 821213	배서호 980410	남윤옥 강혜정	이지운 150806
오진우 840528	이다은 950918	대음포스 161109	이정환 한아름
이수인 880421	이우경 980313	대음포스 김영지	임영빈 150403
이수훈 820301	유아	민예슬 151109	임원혁 이민하
이재운 531001	김리우 150730	민경득 한소영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 모집

일대일사역위원회에서 제3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를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각 언어권별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된다. 문자메시지에는 성명, 연락처, 공동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19일까지 인터뷰를 실시, 해당 언어 수준을 검증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는 통역자를 두지 않고 해당 언어로 외국인에게 직접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를 배출하는 과정이다.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주 동안 이어진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과정이 운영 중이다. 참가자격은 순예배 참석자로 3회 이상 일대일 제자양육을 실시한 성도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2회 이상하고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10-2128-1347(영어)

010-3287-4511(일본어)

010-2658-2955(중국어)

서빙고 샤이닝키즈 참가자 모집

부모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서빙고 샤이닝키즈 참가자를 모집한다. 초등학교와 그 부모가 대상이다. 신청은 황연신 코치(010-5442-8639)에게 이름, 학년, 성별, 주일학

교 부서, 이메일 주소를 적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샤이닝키즈 참가신청자는 자녀와 함께 신명기 6장 4-9절(개역개정)을 암송해 와야 한다.

한터, 특수교사 자원봉사자 모집

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 한터에서 특수교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품 미래도서관(등촌동)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며 봉사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2-3463-9686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 땅을 차지하라

잘못된 해석으로 상처와 절망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일대 교수 미로슬라브 볼프가 〈기억의 종말(The end of memory)〉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유고슬라비아 군인으로 있을 때 부인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CIA의 첩보원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교묘하게 그가 쓴 편지, 그가 쓴 대화의 내용 등 모든 것들을 짜깁기해서 그를 CIA 공작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정부에 끌려가서 심문을 당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심문받은 상처가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과 싸우면서 자신을 고문하고 심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억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 기억을 미움과 적개심으로 해석하면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억을 망각할 것입니까. 선부른 망각은 또 다른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불의를 용납하게 됩니다. 과도한 기억 또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방식이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기억의 방식이라고 소개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역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정의로운 삶과 교훈으로 바꾸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도 기억의 신비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을 통해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억과 마음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림, 새로운 미래로!

또한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잊어버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함께 과거의 교훈까지 망각하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면 새로운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것은 망각하고, 과거의 실패의 교훈을 올바르게 기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각의 예술과 기억의 예술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억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새롭게 교정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자란 기억만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란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억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의한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들 조상들의 실패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다른 실패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교정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약속을 주셨고, 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흘러가버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없어도 되는 실패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말씀을 기억할 때 인생과 역사가 해석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기억의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젊은이들에게 “너는 아직 젊을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꿈꾸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현재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로 가르친 것처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시대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개혁을 한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이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을 관리하던 자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타당한 추정입니다. 모세가 다음세대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백성들이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단했을 때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돌이킨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돌이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상처와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라 올바른 교훈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통일칼럼

통일과 제2의 영적 부흥기 준비

최근 한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둘러싼 국정농단과 탄핵, 이어질 대선에 국내외의 관심이 쏠려있다. 정치, 외교도 문제지만 진짜 어려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명령, 저성장의 고착화, 높아진 취업 문턱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국가지도력의 공백까지 더해져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 저출산, 학교폭력, 성형공화국, 7포 세대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 박람회 보는 듯하다. 악재가 또 하나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덮치고 있다. 그야말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더욱이 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북한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으로 4대 열강의 세력다툼 안에 가둬두셨을까? 혹자들은 자금의 상황을 구한

말과 비교한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되어 일제에게 36년 동안 시련을 겪었던 시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표어가 바로 그것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나라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고난과 포로생활, 패역한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배울 때다. 이사를서를 비롯한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 시대 상황과 국가, 가정, 개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 미션강국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곁에 다가온 통일인 탈북민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주민’을 섬기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도 힘들고 앞이 보이

지 않지만 주를 바라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리고 성을 넘어 제2의 영적 부흥과 제2의 경제도약이 가나안 땅처럼 펼쳐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제2의 영적 부흥과 경제도약이 다가올 통일한국의 모습이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적 각성기가 필요하다.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탈바꿈해야만 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시119:71).

작금의 경제난과 여러 병리현상들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쾌락에 빠진 한국을 다시 살리려는 주님의 처방전이다. 통일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선진국과 후진국의 화합을 이루는 ‘평화벨트’가 되어야 하고,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미션로드’가 될 것이다.

고난과 회개를 통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때 부흥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탈북민 사역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자원과 역량을 모아서 탈북민 교회나 단체들을 네트워킹하고 코디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강서, 양천 지역만 해도 탈북민교회가 많다. 그중에는 10년 이상 한국생활로 잘 적응된 탈북민들의 교회도 꽤 많다. 그들이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나서고 있다. 강서구 소재 ‘뉴코리아교회’가 그 예이다. 작은 교회지만 교육, 전도, 청년 멘토링, 탈북민 주도의 통일선교학교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부흥하고 있다. 새해에는 성도들이 통일기금, 통일학교 등에 동참해서 통일과 미션강국이 앞당겨 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승구 장로
(통일위원회)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애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턴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채용 공고

모집: 양지 영선 직원, 양지 기전 직원,

서빙고 온누리플라워 플로리스트,

양재 기관시설관리 직원, 양재 한식당

조리사(1년 기간제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인

근거주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02-3215-3102

50기 인투부모교실

일시: 2월 7일~9일(화~목 10:00~17:00)

강사: 하신주 선교사 외

대상: 차세대 자녀를 둔신 부모(예비부모)

관심있으신 사역자 등

회비: 12만원(30일까지 등록 시 10만원)

장소: 온누리교회(장소는 추후공지)

문의: 010-9291-8884

일대일 양육자반 개설 일정

-육동건 장로반

2월 7일~5월 23일(화요일 저녁)

-최성석 목사반

2월 8일~6월 7일(수요일 오후)

-신동식 목사반

2월 19일~6월 4일(주일반 오전)

문의: 오승탁 집사(010-3004-3311)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서빙고)

자격: 은사가진 누구나 가능

장소: 비전홀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30~9:00

문의: 이승윤 전도사(010-2701-5309)

금요 철야 예배팀 심어 모집

자격: 온누리 등록 교인(세례교인)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오전 12:30

장소: 서빙고 분당

모집: 남, 여 0명

문의: 이태원 팀장(010-7682-0833)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틀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

임 살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2017 CGNTV

설특집 프로그램

CGNTV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과 이웃이 하나 되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가슴으로 낳은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윤정희 사모. 한 가족이 되기까지 겪었던 진통과 기쁨의 성장 과정을 나누고, 자녀에게 스펙이 아닌 사랑과 말씀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영 : 1/26(목) 오전 11시 30분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탈북 뮤지컬 배우 김충성 목사가 들려주는
그리운 고향과 통일 선교사로서의
신앙이야기

방영 : 1/24(화) 오전 11시 30분



거룩한 바보들

소외계층과 노숙인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은식 목사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야기

방영 : 1/27(금) 오전 11시 30분



김영우의 스위트사운즈

대금 연주자 조재수 단장과
국악 예술단 소리향의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이야기

방영 : 1/27(금) 오후 10시 40분

